

전북 문화예술 · 관광 활성화 '한뜻'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강국네트워크, 업무협약... 문화정책 공동연구 등 협력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사)문화강국네트워크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및 관광브랜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우종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의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정책 연구와 현장 사업을 연계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앞으로 △문화정책 공동연구 및 자문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교육사업 수행 △정책토론회, 세미나, 포럼, 공연 등 행사 공동 개최 및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사)문화강국네트워크는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정책 연구와 입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 등록 법인이다. 최근 서울 관악구와 경기 화성시 등과도 협약을 맺으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정책 연구 역량을 지역 문화정책에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전북은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이 전북의 독창적인 문화 자원과 문화강국네트워크의 정책 역량이 결합해 전북의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문화예술 및 관광브랜드 발전을 위한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우종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 이경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갖고 있다.

강력한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을 넘어 관광과 마이스(MICE)를 잇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며, "문화강국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전북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우종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전북자치도가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실질적인 정책 토론회와 연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 작가 문학작품, 오디오북으로 만나다

전주문화재단, 신간 5종 전국 유통

전주문화재단이 전주 지역 작가들의 문학작품 5종을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해 3일부터 전국 유통에 들어갔다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신간은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김정배 시인의 시집 '밀줄 친 얼굴', 윤형주 작가의 동시집 '인 축구', 정유진 작가의 동시책 '빨간 조끼의 비밀', 조계영 작가의 동시

집 '가나나의 마음', 하기정 작가의 산문집 '간장계장과 아포가토' 등 총 5종이다.

재단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지역 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이번 작품들을 오디오북과 전자책 형태로 동시 제작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전국 주요 온라인 서점과 밀리의 서재, 윌라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주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출간을 기념한 독자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

다. 재단은 3월 4일부터 한 달간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기대평과 구매평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행사도 이어진다.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 전주 구도심 복합문화공간 기린도원에서 오디오북 북콘서트 '문장, 소리를 담다'가 열린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참여 작가 5인이 직접 출연해 작품 낭독과 오디오북 감상,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3일 익산예술의전당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예술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에서도 우수 공연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익산예술의전당은 발레, 재즈, 뮤지컬 등 3개 장르에서 고품격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한층 확대할 전망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고품격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더 발레리나'는 무대 뒤 무용수들의 삶과 성장을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며, 신현필 X 고희안의 '디어 모차르트'는 색소폰과 피아노의 조화로 모차르트 작품을 재해석하는 공연이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삶을 바탕으로 슬럼프와 극복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라이브 피아노 연주와 함께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때

4부 '굿때와 전쟁' (32)

갈려면 혼자 가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일단 군경을 막아서는 전투를 진행하다가 불리해지면 3개 소대는 동남쪽으로 흩어져 군경의 추격을 따돌린 뒤 제2의 아지트에서 집결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에는 선운산을 버리고 정읍 내장산으로 붙어야 했으므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운곡리 저수지 남쪽 아래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1소대인 배대우 소대는 가장 최전선에 있었다.

"과광 광!"

아지트 중심부에서 포탄이 터졌다. 군경은 박격포까지 동원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중심부에서 터지기 시작한 박격포탄은 여기저기에서도 산발적으로 터졌다.

이에 마음먹고 면밀히 작전계획을 수립한 후 공격해오는 게 틀림없었다. 유격대는 7부 능선에 포진하고 있었으므로 공격해 오는 군경보다 유리한 편이었다.

남준은 군경을 향해 사격했고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도 던졌다. 얼마 전까지 남준은 군경과 함께 빨치산을 토벌하려 다녔는데 지금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다. 쏘고 싶지 않지만 살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신없이 쏘고 던지는 가운데 소대장의 명령으로 대원들은 분대별로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2개 분대가 전방에서 전투를 벌이던 1개 소대가 후퇴하는 방식으로 남쪽으로 물러났다.

한참을 정신없이 쏘고 뛰면서도 남준은 명희가 걱정되었다. 명희는 불자의 보급 등을 담당하는 중대장 휘하의 본부소대에 편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남쪽으로 후퇴를 거듭한 뒤 하루만에 군경의 추격을 따돌리고 희여계곡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다. 몇 명의 대원이 따라오지 못했다. 그들은 어느 골짜기에서 피를 뿌리며 죽어갔을 것이다.

모두 정신없이 달려온 지라 남준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원들의 눈은 여느 때와 달랐다.

남준의 눈에는 심지어 지금 국방군이 공격한 것도 혹시 네놈이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대원들은 하룻밤을 꼬박새면서 산을 헤맨지라 경계병만 남기고 다들 여기저기서 숨어 있었다.

남준은 이곳에서 저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희가 걸렸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명희를 데리고 떠나야 한다.

소대는 아밤을 틈타 집결지인 운곡저수지 남쪽으로 이동했고 미리 후퇴해 있던 중대장의 본부소대가 만났다.

남준은 먼저 명희를 찾았다. 명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눈빛이 달랐다. 반가운 눈빛이 슬쩍 스치기는 했지만 이내 서늘한 눈으로 남준을 바라본 뒤 고개를 돌려버렸다.

얼마 뒤에 박창수가 속한 소대가 집결지로 들어왔다. 남준을 발견한 박창수는 세 모눈을 뜨고 남준을 바라보며 소대장 귀에 뭐라고 속삭였다.

나머지 소대가 당도하기 전에 남준은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남준은 늦은 밤 다른 대원들의 동태를 살피며 명희에게 접근했다. 명희는 잠들어 있었고, 깨웠는데 눈을 뜨고 남준을 바라봤지만 반가운 눈이 아니었다.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명희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남준은 말했다. 명희는 남준의 눈을 피한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말이야?"

명희가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남준은 무슨 말인가 싶다가 슬며시 명희의 눈을 피했다. 명희는 박창수가 제기한 남준의 행동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남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야 하면 명에 지나지 않았다. 남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명희는 시선을 돌렸다.

"갈려면 혼자 가."

남준의 가슴에서 심장이 툭 떨어졌다. 남준을 기생하고 있던 커다란 뱀이 우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남준은 더 할 말이 없었다. 명희는 남준을 포기한 것인가.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